

# 투자자가 바라본 우수 바이오특허 포트폴리오

신정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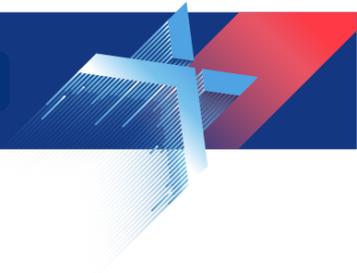
바이오디자이너스 전문위원



바이오-IP 세미나

대통령소속  
국가지식재산위원회  
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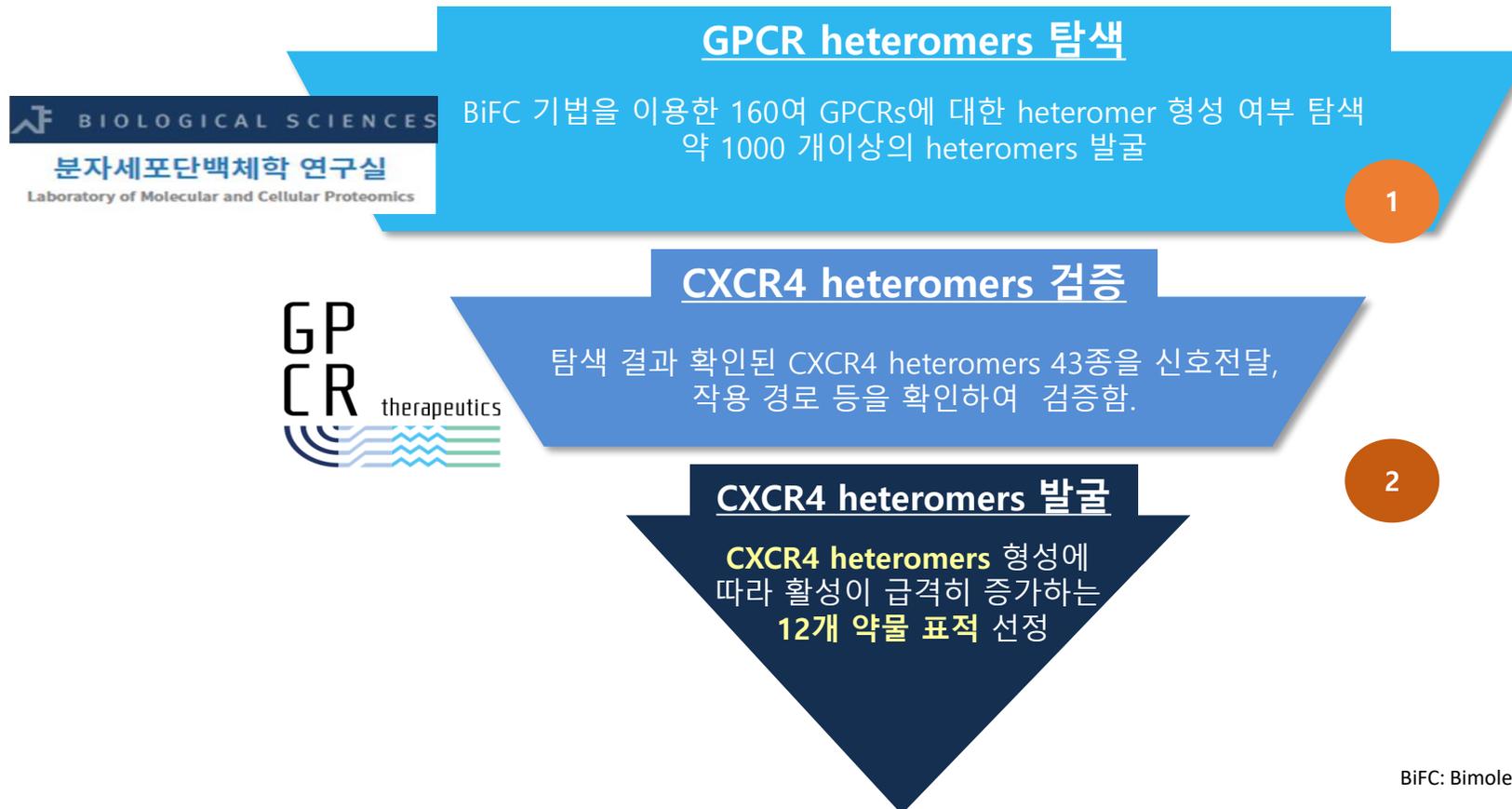
koreaBio  
Korea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 
한국바이오협회



## Table of 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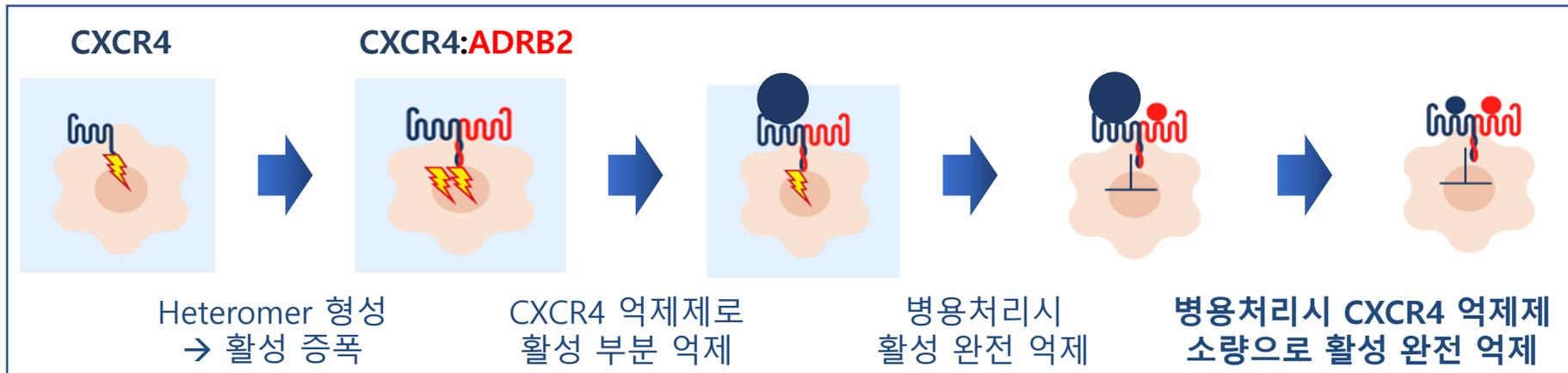
- (주)지피씨알 개요
- (주)지피씨알의 사업 논리
- 특허 전략
- 특허권 확보 이력
- 사업 전략의 가속화
- 바이오벤처의 특허 전략 (문제의식 및 제언)

- 2013년 설립. GPCR Heteromer 형성 여부를 탐색한 데이터를 플랫폼화, 신규 항암 타겟으로 개발
- 신규 항암제 표적 GPCR Heteromer 발굴



## CXCR4-GPCRx Heteromers 형성에 따른 기능 변화

- Heteromer 형성에 따라 CXCR4 활성의 급격한 증가를 일으킴
- 증가된 CXCR4 활성은 CXCR4 inhibitor 및 GPCRx inhibitor 단독처리 시 부분적으로 억제됨
- 증가된 CXCR4 활성은 CXCR4 & GPCRx 억제제 병용처리 시 완전 억제됨
- 병용 처리시 현저히 적은 CXCR4 억제제로도 완전 억제됨





- **개발 초기부터 글로벌 기준에 맞는 특허 업무 네트워크 구축**
  - 주요 제약시장에 초점을 맞춘 특허전략 구축을 목표로 함
  - 글로벌 신약 제약사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특허법인의 전문 컨설팅
  - 내부 특허 전문가 (시니어 변리사) 영입
- **특허 실시자유도 확보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병행**
  - 넓게는 원천 기술인 GPCR Heteromer 플랫폼부터 좁게는 특정 물질까지 철저한 특허성 조사
  - 플랫폼(타겟) 기술 특허확보를 위해 R&D의 폭넓은 실시예 데이터 공조
  - 경쟁기술에 대해서는 기본적 특허 landscape 조사를 통한 지속 모니터링
- **안정적 특허정책 유지**
  - 대외발표제어 프로세스 구축 및 준수
  - 직무발명보상규정 및 특허 준법 경영



### ● 타겟 특허 출원과 등록 전략 일반

- 미국 가출원 및 Track I 출원: 데이터 축적 및 최초특허 조기 등록
- 미국 연속출원/각국 분할출원: 출원 후 R&D 결과에 따른 중요도 변화 반영한 청구범위 변경
- PCT 국제출원: 국가 선택 시간 여유 확보

### ● 비용 및 기간

- 최초 기본특허는 조사비용 포함 수천~억대 예산 필요
- PCT 출원은 기본 천만원대 + 각국 수백만원 수준 (번역료가 절반 이상이므로 페이지수 의존적)
- 우선심사로 조기등록이 전략인 경우는 정규출원 후 1-1.5년 시점 등록 가능

### ● 기술기반 기업은 특허가 핵심 자산

- 지속적 특허 투자 및 특허정책 유지가 필수
- 라이선스 아웃을 목표로 하더라도 상대방이 흡잡을 수 없는 특허 포트폴리오 및 전략 보유가 필수



### ● 원천특허 확보

- CXCR4-GPCR Heteromer는 모두 우리의 땅이다.
- GPCR Heteromer 역시 우리의 강역이다.
- GPCR 타겟 약물에 대한 개량특허 확보로 영토 확장 : Monomer → Heteromer

### ●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(Quantum Leap)

- 플랫폼 기술의 개념 검증 & 확장에 연구 역량 집중
- 자체 프로젝트 + 외부 프로젝트 도입으로 사업 범위 확장
- GPCR 타겟 약물의 특허 만료 이후에도 신규 가치를 창출 : 직접 사업화 또는 원특허권자에 라이선싱 아웃

### ● 사업 전략의 다변화

- 'Licensing out Only'에서 'Licensing In & Out'으로 확장
- 요소기술, 프로젝트 보유 회사 M&A
- Go Global : 미국 자회사 설립 & 직접 사업화 (with BMS Alumni)





### ● 반쪽짜리 특허, 누구의 문제인가?

- (대학, 연구소 특허) 예산이 문제인가?  
예산과 형평성 이슈로 지원은 PCT까지만?  
어떻게 원석을 고를 것인가?
- (정부 연구개발과제) 질보다는 양이다?  
설익은 사과도 따야 한다?
- (기업) 반쪽짜리 특허는 팔 수가 없다 : 라이선싱은 대부분 특허권 기술이전의 형태를 띤다.  
특허에는 아낌이 없어야 한다 : 비용인가, 투자인가?

### ● 바이오벤처에게 특허란 'OOO' 이다.

- 사업의 전제이다.
- 과학 및 기술 역량의 현현(顯現)이다.
- 찌빵 속의 앙꼬(팥소)이다.